

부활 제 6 주일

기도서 P. 291 B해

제1독서(사 도 10. 25-48)
 제2독서(요 한 I 4. 7-10)
 복 음(요 한 15. 9-17)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칼 문



희 생 의 힘

김 윤 섭 신부

영국의 역사가 프리만(E. A 1823-92)은 말하기를 역 사상의 큰 이적은 예수께서 바다위를 걸어간 것이나, 5 병2어(五餅二魚)로 5천명을 먹인 것보다 네로마제국이 정권(政權) 또는 군권(軍權)으로 기독교의 박멸을 꾀하 였지만, 도리어 불과 300년에 황제의 칠폐(刺命)과 서 민(庶民)의 귀의(歸依)로 전세계가 십자가에 요절된 예 수 그리스도의 산하에 무릎을 꿇것이 이적중 이적이라 했다. 더우기 바울로가 로마에 입국(入國)할때 일을 생 각하면 작은 몸집, 작은 키, 초췌한 모습 게다가 수갑을 찬 죄수의 몸이라는 보잘것 없는 초라한 행색(行色)이었 다. 이 미친한 자가 장차 네로마를 번동시킬 줄 누가 알 았으랴!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 열렬한 설교, 은은 한 가르침, 마지막으로 흘린 뜨거운 피, 이 모든 사랑의 희생은 로마뿐 아니라, 천하를 떠들썩하게 하고 만대들 움직여, 수만만의 바울로를 낳게 하였다.

일본 교수의 순교기록, 한국 대원군의 신자 학살, 중 국 협시성의 순교사등 당시 정권이 포위의 칼날을 들고 그 뿌리를 끊으려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누르던 누를수 록, 베면 벨수록 새로움과 새로운 싹이 돌아 번성케 되 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보고 증명하는 사실이 아닌가?

제 목숨을 바치는 자는 얻으리라. 「제 생명을 아끼는 자 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 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특수한 교훈, 신자생활 의 황금율이다. 「주라, 버리라, 희생하라」 이것은 십자 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는 도저히 수궁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큰 것 을 얻으려는 자는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고가의 진 주를 사려는 자는 저렴한 집물을 아끼지 않고서 파는 것 이다. 공자(孔子)는 「몸을 죽여 인을 이루라(殺身成仁)」 하고 맹자는 「생명을 버리고, 의에 나가겠다」고 하였 다. 이같은 고귀한 진리는 이기아욕(利己我慾)에 눈이 어두운 속배(俗輩)의 알바 못됨은 당연지사이다.

그리스도인적 생활은 다음 두마디로 집중된다. 「자기 를 바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은 무덤에 잠들때까지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이다. 신앙이 그렇게도 타올랐던 초대 그리스도 신자도 그렇게 깨달고 있었고, 성인들의 생활도 그같은 것이었다. 희생을 싫어하고 이기아욕에 눈이 어두워 거짓과 부정이 성행하고 부조리가 압치된 만연된 오늘의 사회에서 여러분은 진실한 그리스도 신자 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가?

벉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3). (진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자연보호와 덕배보호

지난 10일, 울산에서 식수에 <6가 크롬>이 섞여 있 음 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 신문들은 이미 4년전에, <6가 크롬>의 피해를 이 렇게 적고 있다. -폐암 유발, 콧구멍 중간벽에 구멍이 뚫림, 신경장애, 관절통, 빈혈, 폐양, 덕의 뼈가 썩음, 이가 빠짐.

일본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마(魔)의 공장」으로 크게 물의를 빚고 있는 공해산업인 중크롬산소다 생산업 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울산 무기화학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한다.

어느 기자는 그의 수첩에 이렇게 적고 있다. -「공해 문제는 우리 시대에서는 필요악이라는 도그마(dogma, ※신조, 정설)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공해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일이라던 가. 마치 호주지책을 위해 몸을 파는 것이 뭐가 잘못이 나는 듯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공장을 돌려야 하고 공장에서는 공해물질을 배출하게 마련이다. 일부 국민들 이 이르 해서 병들더라도 나라는 튼튼해진다.」-이런 동 기호태같은 생각이 아직도 우리 머리속에 숨어 있다면 사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자연이 사람을 보호해주니, 사람은 마땅히 자연을 보 호해야 한다. 근년에 들어 자연보호운동이 한창이다. 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당국이 등한히 하는데 문제가 있다. 새와 나무는 보호받는데 사람은 덕배가 썩고 콧구멍 벽이 뚫리게 될 처지에 이르 게 되었다. <크롬>이 오염된 땅에는 식물이 전혀 자라지 못하며, 폐수는 독한 경우 들어간 사람의 다리가 썩을 정도라 한다.

일부 국민들이 공해로 말마암아 병들더라도 경계발전 만 가져오면 그만인 아니다.

숲 정 이 산 채





이웃도 친구도 모두가 주안에 함께라면

김 광 태

일전에 일간지 신문을 들여다 보니 모 수필가 한 분이 쓴 글을 읽은적이 있었다. 내용인즉 자기집 현관 초인종벨이 울리면 손님이 찾아왔다는 반가움보다 흥기를 들고 나를 위협하는 강도는 아닌지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답니다. 날마다 신문을 보면 사회면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살인강도, 차치기, 뺑소니, 유괴범 등등 갖은 흉악범이 날로 늘어남은 내용의 글 이었다.

이 글을 읽고 어찌서 끔찍한 사건이 매일 일어나야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끔찍한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내 가족이 당하지 않았으니까 내 집이 당하지 않았으니까 문을 잠그고 안도의 숨을 죽일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본다. 얼마동안 생각에 잠겨 있노라니 문득 나의 머리에 떠오르는게 있었다.

어느날 우리 본당 신부님 강론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자식을 낳으면 학교 공부에는 사력을 다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육에는 등한시 한다든지 외면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다는 말씀이었다. 또한 친구고 신자가 통계적으로 범 죄율이 가장 적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주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친구고 신자는 비 신자보다 죄를 무서워 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확천금 보다 죄악이라는 선입감이 더 앞선다는 논리다.

만약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친구고 신자라면 범죄가 현저하게 줄지 않을까? 또한 모든 국민이 열심히 신자라면 이 방법이 흉악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꿈과같은 생각을 해보며 미소를 지어봤다. 꿈은 꿈일망정 현실로 돌아와 생각해 보건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가 주일학교에 충실한지 돌아보아야 되겠다. 일요일 주일미사에 와 보면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나 어른의 참석율이 높다, 바빠 말하면 냉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나의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때, 성당에 잘 나오는지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젊은이들이 교회일에 소극적인 태도일 때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의 견해로는 각 성당마다 주일학교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의심스럽다. 반면 모두가 주일학교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는 정서교육을 확고히 하고 모두가 병답하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게 될 때 흉악범의 예방도 되고 자신의 구속사업도 이룩하고 일거양득이 될테니 또한 이게 바로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길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함열 천주교회>



공 동 생 활

김 태 섭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매일의 생활을 돌이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희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를 들면 한 아이의 어머니는 그냥 아기를 보살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를 보살피기만 한다면 어느때가는 기계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기는 한 인간 존재로서의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상호친회와 사랑으로 얽힌 인간의 유기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사회는 퇴화되고 말테니까요. 공동생활만이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아닐까요? 직장에서 혹은 들에서 종일토록 피로와 시달림으로 지칠대로 지쳐 집에 돌아오면 사랑스런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가질 수 있다는 따뜻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학자나 직장이나 농부, 모든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으며, 평화와 사랑의 세계를 마련하려고 하지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친구와 이웃과 따뜻한 애정으로 공동생활을 행복하고 뜻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수류 천주교회)

사제양성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 중간보고 ②

"파티마 본당,
1인당 302원꼴로 제1위"

신실인 파티마 본당이 사순절 성금운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신자 1인당 302원꼴로 해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거북선 담배 1갑꼴이 교구에서 1위라니 약간은 쏠쏠하다.

신자 1인당 200원 이상 본당의 랭킹은 다음과 같다. -

- ① 파티마(302원), ② 대야(293원), ③ 무주(230원), ④ 둔율동(212원), ⑤ 월명동(210원), ⑥ 복자(200원),

-겨우 6개 본당이다.

시골인 대야(293원)와 무주(230원)가 200원대를 넘었는데도 전주 시내의 6개 본당과 군산의 2개 본당, 이리의 2개 본당이 200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150원 이상 본당의 랭킹을 살펴보자. - ⑦ 창인동(196원), ⑧ 숲정이(185원), ⑨ 원평(161원), ⑩ 남원(158원), ⑪ 오룡동(153원), ⑫ 용안·상관·순창(각 150원).

물론, 이 통계는 사순절 성금운동이 마무리를 짓지 못한 단계의 중간결과이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 단계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 독사·뱀 물린데 백말 백종치료 완

복 사 폐 차 장

대표 송 주 원(노혜조)

전 화 ③ 2365

전주시 금암동 태빙포링(옆)

◆ 고급 숙녀복·쇼킹 패션 코너

제 일 모 직 라 보 데

김 형 택(바오로)

□ 전주시 중앙동 3가 67-10

(우체국 후문 앞)

전 화 2-7404



아빠·엄마 혼배 받을때 깨떡 먹는뎃어!

김 병 열 신부

혼배 받기 위하여 9번이나 사제관의 높은 문턱을 넘나들던 그 옛날! 십이단 찰고에 다, 문답 320조목, 조과 만과 그리고 매패신평 등을 초현대식 기관총, 1분에 600여발 이상을 발사하는 식으로 하여야 혼인의 허가가 나오고 거기에서 혼인공시를 붙인지 두 주일이 지난후에야 혼배를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박물관의 유물이 된지 오래라고 노회장님들은 한탄가를 연발한다.

긴 사무생활은 아니하였지만 혼배성사를 집행하였는데, 크게 실수 한적이 있어서 혼배 성사를 받는다고 하는 젊은이가 올때마다 나를 긴장하게 한다.

7·8년전쯤 되었을가 부모님은 태중 교우여서 성교법규나 주일도 열심히 지키는 교우이기에 나는 항상 부모님을 A급 교우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서울에서 돈벌이 하는 아들을 혼배 시키야 하겠다면서 신문에 짤 담배 몇갑과 소주 두어병, 그리고 얼룩이 과자 몇봉을 사들고와서 사정하는 것이었다. 가톨릭 중요기도문은 제대로 암기 하였었고, 교리는 학생때 배운 교리지식 정도여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여자가 외교인이기 때문에 관면 혼배를 주었다.

혼배를 한지 한 주일후 남편은 서울로 떠나버리고, 3개월이 지난후에 겨우 편지가 왔더라는것, 세상에 이렇수가 있겠느냐 싶어 서울에 부랴부랴 찾아가 보니 어떤 여자와 동거하고 있더라는것, 그것을 보니 하도 기가 막혀 눈에 쌍볼이 켜져 버리더라는것, 그러나 이틀을 두고 삼과전을 벌였지만 역부족으로 온몸은 바둑판의 얼룩이가 되었고 머리칼은 열병 앓은 머리가 되어버렸다는 것, 하도 분해서 한강에 투신하려다가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 말씀을 드리니, 이젠 출가 의인이니 배가 알아서 친신 하라면서 시집으로 쫓아 버리더라는것, 며칠이 지난후 새각시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급했던 시어머니 집안 망했다고 어찌 할바를 물았었다. 집안이 망한게 아니라 젊은여자 버리고 교회가 망했다고 나는 악을 썼었다.

정부는 개인당 1000불이상의 소득이라고 째짜궁의 손벽을 치지만 정신면을 무시하고 물질만을 앞세우는 정부 정책으로 우리는 1000불 이상의 손해를 보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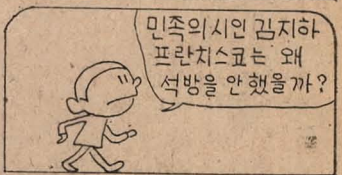
요사이 도시화 현상으로 노동력 있는 사람이면 거의 서울로 서울로 서울행이니 우리 교우라고 예외는 아닐 수 없다. 서울에 가는 이들은 일정한 직장이 거의 없고 막벌이꾼이 대부분이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된날에 쉬는 날이면 고통도 엄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 친구도 서로 서로 소개하여 주고 하여 혼배 받기 전에는 처녀 총자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려적 고사에서 나오는 소설이 되어 버렸다. 특수한 경우이지만 혼배 전에 살고 있다가 출몰이 사랑 아닌 아이가 혼배 받고 있는 엄마에게 젖음 달라고 예를 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아빠 엄마 혼배 할 때 깨떡 해준다고 할머니가 그랬다면서 좋아라 하는 아이도 있는 것이다.

이 현실에서 교회는 이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목할 것인가?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요심이 (303) 김병열



사진자료·사진기계·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 6346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주단·포목 혼수 이불감 도산매

유진상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완 태(바오로)

전화 : 5821

결 (축) 혼

김정생 씨 3제 갑 생 군

한옥순 씨 4녀 신두순(로사리아)양

일시 : 79년 5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례 : 서울복 신부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직원모집공고

1. 모집인원 : 남·녀 ○명
 2. 응모자격 : 고졸 이상의 실력을 가진자로
남자 :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30세 미만의 남자
여자 : 22세 미만의 미혼여성
 3. 구비서류 : ①차필 이력서(사진 첨부) 1통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병적증명서 각 1통 (남자)
※ 부기, 주산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통
 4. 접수기간 : 1979년 5월 26일 오후 5시까지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실기 및 면접
면접일자 : 1979. 5. 28일 오후 2시 본조합 사무실
 6. 접수처 : 전주시 경원동2가7-9 (구, T V 문화방송국)
전화 ㉠ 0810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전주 임원 신용 협동조합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인권 강연회 및 민족의 시인 김지하 문학의 밤...5월 21일<월> 오후 8시, 군산 월명동성당
주최: 월명동 본당, 후원: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2.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5월 총회...5월 23일(수) 오후 4시, 교구청 회의실
 3. 김영구(베드로) 신부님 금경축...5월 25일<금> 오전 11시, 자택에서
모두 모여 병석에계신 신부님의 사제서품 50주년을 정성껏 축하해 드립니다
 4. 전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총회...5월 26일<토> 왜관에서, 김재덕 주교님 참석
- 순정이 편집실 전화성금 감사합니다...전주임원 신용조합 5천원, 무주 김노벨도 1천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정태현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20일<일> 공식미사 후(강당)
 2. 경로잔치: 20일<일> 오후 1시(강당)
 3. 영화상영: 21일<월>~23일<수> 저녁 8시 30분(강당)
 4. 성모의 밤: 24일<목>-주일학교 어린이, 25일<금>-중·고등학생, 26일<토>-일반신자
시간: 저녁 8시(동고상 앞)
 5. 푸리아 육의행사: 27일<일> 오전 11시
장소-덕진, 도시락 각자 지참
 6. 유아세례: 25일<금> 어머니미사 후
 7. 견진교리: 28일<월>~6월 1일<금>
시간-저녁 8시 30분(강당)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8. 봉사분과 위원회: 공식미사 후(회의실)
임원 전원 참석하세요
- 지난주 불현금: 211,183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김성록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와 자모회 소품: 5월 27일
현지에서 자모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자모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3. 토요일 성령기도회: 매주(토요일) 오후 8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세미나를 받으신
분은 꼭 참석하십시오
 4.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납합니다
- 지난주 불현금: 90,59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복
사도 회장 유제상

1. 성모의 밤: 31일<목> 저녁 8시
화분, 꽃, 초 봉헌 바랍
 2. 승천대축일 야외미사: 전당리 백석재
미사: 11시 30분, 차편: 9시 25분·40분·30분간격
 3. 가정방문에 협조해 주신 구역장, 반장님 감사합니다
 4.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11시(2층 회의실)
 5. 주일학교 교리: 일요일 3시-미사, 2시-교리
 6. 진복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빠짐없는 참석 바랍)
 7. 대축일 미사안내: 오전 6시, 저녁 8시,
공식미사-전당리
 8. 축! 결혼: 20일 12시
신랑: 강남형(본도), 신부: 김연옥
- 지난주 불현금: 28,845원 교무금: 121,05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공동체 묵상회 제 4차: 5월 26일, 27일
1차 50명, 2차 61명 받았음, 아직 못받으신 분은 반
회장님 사무장에게 접수 바랍니다
2. 성모의 밤 행사: 27일(주일) 오후 8시)
신심단체 및 개인별, 기도, 화분, 양초 준비 바랍
3. 주일학교 소품: 오늘 오전 9시미사 후, 상판으로
도시락 준비하여 9시미사에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4. 예비자교리 안내
매주일 공식미사 후(히레사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박신부님 지도)
5. 주일학교 도서실 개원
도서 신청(기증) 접수중(많은 협조 바랍)

6. 미사시간 변경안내
저녁미사-8시(화·목·금·토·일),
새벽미사-5시 30분(수·일요일)
 7. 축! 결혼: 5월 27일 12시
신랑-전호균, 신부-박선숙(유리안나)
- 지난주 불현금: 219,570원

(서화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부녀주일: 미사후 월례회
 2. 자체교육: 10시미사
 3. 자체감사: 10시미사 후
 4. 수요기도회: 23일 저녁 8시30분
 5. 예수승천 야외미사: 27일 구이저수지 12시 중식지참
 6. 영세예비자 특별교리: 21일~6월 2일까지
 7. 교무금 신일: 지금까지 미신입자는 5월30일까지 신
입하시고, 이 기간내에 신입안하시면 78년도 교무금
에 50% 가산신입에 이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음
- 지난주 불현금: 77,695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학생여러분! 복잡한 공식미사에 나오지 마시고 정
해진 학생미사 참여하세요
 3. 매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성모성월에 참석하세요
 4. 신축기금: 정순복(3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불현금: 128,20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기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염수홍

1. 피미시움: 오후 2시
 2. 사도회 임시총회: 저녁미사 후
※ 각 신심단체장, 동반회장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
 3. 미사시간 안내: 주일-오전 5시반, 9시, 10시, 오후
2시, 8시 평일-오전 5시, 오후 8시
 4. 성모의 밤 행사: 5월 31일 저녁미사 후
지참물-목주, 성가책, 초
 5. 4월말 결산: 총수입 - 7,130,592원,
총지출: 7,119,017원, 잔액: 11,575원
 6. 장우회: 23일 군산 도시락 지참, 11시 전주역 집합
- 지난주 불현금: 218,26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성모의 밤 행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교우님께 감사
드립니다
 2. 본당 자체교육
5월 25일 8시 평신도활동과 그 보람(김준호 신부님)
6월 1일 8시-평신도와 교회공동체(김병영 신부님)
6월 8일 8시-갈삼의 길
 3. 예수승천 야외미사: 5월27일 오전 11시(승천
주일) 장소-상거마(당일 점심 준비, 오락도 있음)
 4. 구역미사: 5월 26일-1단지, 6월 2일-에그린,
6월 9일-우진, 6월 16일-효자 2가
 5. 영화상영: 5월 29일 저녁 7시30분 "거룩한 사랑"
 6. 견진밤오실분: 7월 1일에 본당에서 견진성사가 있
습니다. 견진밤오실분은 사무실에 등록하세요
 7. 행가운동: 6월 1일 오후 2시 영화상영 및 강의
 8. 신용조합 출자금: 본당에서도 접수합니다.
교우분들은 모두 조합에 가입합니다
- 지난주 불현금: 55,690원